

번호 II-14				
제 목	국문 영문	노인들의 키와 체중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 강화 코호트에 의한 전향적 연구 Height, Weight and Mortality : Kangwha Cohort Study		
저자 및 소속	국문 영문	오회철, 지선하 ¹⁾ , 이상욱, 설재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¹⁾		
분야	보건관리 () 역학 (o) 환경 ()	발표자	일반회원 (o) 전공의 ()	발표 형식 구연 () 포스터 (o)
진행상황	연구완료(o),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년 10월			

1. 연구 목적

체질량지수와 사망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여전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인과 같이 체질량지수가 낮은 민족에서 사망률과 관계는 외국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와 차이가 많을 것으로 본다. 강화 코호트를 이용한 이전연구에서 남자의 경우 체질량지수는 사망률과 U자 형의 관련성을 보였고, 여자의 경우는 U자형보다는 음의 관련성에 가깝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체 질량지수를 이루고 있는 체중과 키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체중과 키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파악될 경우 체질량지수와 사망률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본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1985년 3월 구축된 강화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강화코호트는 1985년 3월에 면접조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남자 2,724명과 여자 3,650명 총 6,374명이었다. 그리고 인지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였다. 체중과 키는 각각 5분위 변수로 나뉘어진후 분석에 사용되었다. 즉, 체중은 <44.9, <50.5, <55.0, <60.0, 60kg 이상 다섯군으로 나뉘었다. 키는 <146.0, <151.8, <157.2, <164.3, 164.3cm이상 다섯군으로 나뉘었다. 사망에 대한 자료는 읍면의 사망기록과 전산입력자료를 통한 생존, 전출, 사망 등에 대한 전화, 우편, 가정방문, 이웃의 확인 등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체중 및 키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 결혼상태, 흡연 등의 사망관련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중 남자는 2696명 (42.9%), 여자는 3594명 (57.1%)이었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남자 66세, 여자 67세이었다. 1985년부터 1999년까지 15년 동안 추적되는 동안 사망자 수는 남자 1551명, 여자 1459명이었다. 연령과 키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장 낮은 체중(44.9kg)을 가진 군에 비해 체중이 20p씩 증가할수록 사망률에 대한 비교위험도는 남자의 경우 0.8 (0.6-1.0), 0.6(0.5-0.8), 0.6(0.4-0.7), 0.5(0.4-0.6)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같은 경우에 여자의 경우도 0.8 (0.7-0.9), 0.8(0.7-0.9), 0.7(0.6-0.9), 0.9 (0.7-1.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연령과 키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장 작은키 (146cm)를 가진 군에 비해 키가 20p씩 증가할수록 사망률에 대한 비교위험도는 남자의 경우 1.5 (0.9-2.5), 1.6(1.0-2.4), 1.7(1.1-2.6), 1.7(1.1-2.7)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같은 경우에 여자의 경우는 0.9 (0.8-1.1), 0.9(0.8-1.0), 1.1(0.8-1.4), 0.9(0.5-1.9)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4. 결론

한국인 남자 노인의 경우 체중이 낮은군에 비해 높은군에 사망률이 낮았고, 키는 작은 키에 비해 높은 키로 갈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키와 체중이 사망률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